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⑤

2014년 10월 22일(수)

#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송 원 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⑤

##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 〈일정〉

- 일 시 :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8:30 ~ 18:00
- 답사지 : 함안박물관, 합천박물관, 대가야 박물관

시 간	내 용	비 고
08:30~10:00	이동(국립김해박물관 ▶ 함안박물관)	
10:00~11:00	함안박물관	
11:00~12:30	이동(함안 ▶ 합천)	
12:30~13:30	점심식사	
13:40~14:40	합천박물관	
14:40~15:20	이동(합천 ▶ 대가야 박물관)	
15:20~16:20	대가야 박물관	
16:20~18:00	이동(대가야 박물관 ▶ 김해)	

## 1.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아라가야

3세기 말 중국의 진수(陳壽)에 의해 편찬된 《삼국지》의 위서동이전 한조 기사에 보면 3세기 무렵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는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변진(변한) 12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변한의 한 나라인 안야국이 오늘날 함안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야'의 발음은 자전에 보면 '사'로 되어 있으나 옛날의 원래 발음은 '야'로 읽혔기 때문에 '안야국'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야국의 형성 시기는 기원전 3세기까지 소급해 볼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여러 취락들이 정치적 결합을 거듭하여 안야국이라는 소국(小國)으로 성립한 것이다. 소국의 내부구조는 여러 개의 읍락(邑落)과 별읍(別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읍락은 복수의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촌락은 여러 개의 작은 촌이 모인 것이다. 별읍은 소국의 제사를 담당하는 촌이었다. 소국의 우두머리인 수장은 대읍락에 거주하며 통솔하였다.

함안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삼한시대 유적은 도항리·말산리유적으로 주로 말이산고분군의 북쪽구릉 능선사면에 조성되어있으며, 일부는 후대의 덧널무덤(목곽묘)과 돌덧널무덤(석곽묘) 등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1992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 1998년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33기의 널무덤(목관묘), 2기의 독널무덤(옹관묘), 9기의 덧널무덤(목곽묘)이 확인되었다.

이 중 널무덤은 규모 250~290cm 정도의 장타원형으로 등고선방향과 거의 직교하게 설치되어있다. 유물은 피장자의 신변주위에는 주로 쇠칼이 매납되었고, 보강토 상부 및 내부에는 소뿔모양손잡이항아리와 주머니단지를 비롯하여, 쇠화살촉, 쇠도끼 등이 매납되었다. 시기는 1~2세기 대가 중심을 이룬다. 이후 함안지역의 경우, 서부경남지역과 마찬가지로 3세기 대의 덧널무덤



사진 1. 도항리 24호 널무덤

과 후기와질토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당시 무덤의 연구를 통한 사회상을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삼한시대 안야국이 성장하여 안라국이 된다. 그 시기는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인 3세기 말 4세기 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되면 안라국은 칠월 지역을 포함한 오늘날 함안의 전 지역을 통할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마산에 있었던 골포국을 통할함으로써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중심 지배집단은 말이산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이었을 것이다.

안라국에 대한 국명은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아시랑국(阿尸良國)과 아나가야(阿那加耶)로, 물계자전에는 아라국(阿羅國)으로 《삼국유사》 오가야조에는 아라가야(阿羅伽耶)로, 《일본서기》에서는 안라(安羅)와 아라(阿羅) 등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국명들 가운데 이제까지는 주로 ‘아라가야’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는 가야가 존재했던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신라말 고려초에 생겨난 이름이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현 함안 지역에 있었던 국명으로는 ‘안라(安羅)’ 또는 ‘안라국(安羅國)’ 으로 표기함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안라국은 고령의 가라국과 더불어 후기 가야 여러 나라들을 주도하는 가야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바다 건너 왜국과도 활발한 교류를 행하였다. 529년에는 ‘안라고당회의’ 를 주도하는 등 가야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지만, 561년 무렵 신라에 의해 무력으로 정복당하고 만다.

중심 고분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1964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항리고분



사진 2. 말이산 고분군 전경

군(사적 제84호)과 말산리고분군(사적 제85호)으로 관리해 오다가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시대와 성격의 무덤들이 조성되어 있는 하나의 고분군으로써 2011년 7월 28일 사적 제515호로 통합·재 지정되었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번은 도항리 484번지 등 562필지이며, 면적은

525,221㎡로 가야시대 고분유적으로서는 최대급의 규모를 자랑한다.

함안군에서 고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야시대 봉토분은 총 37기로, 가장 북쪽에 위치한 1호분부터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주능선·가지능선 순으로 일련번호가 붙여져 있으며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고분이 37호분이다. 하지만 1991년 국립창원대박물관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기존 37기를 포함하여 모두 113기의 봉토분이 확인되었으며, 또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로 보면 봉토가 삭평되어 원형을 잃어버린 것까지 있어 이를 포함하면 1,000기 이상의 가야시대 고분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이산의 봉토분은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집중 조성되었으며, 그 분포는 남·북으로 이어진 주능선과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지능선의 정부(頂部)에 대형의 봉토분이, 사면부에 중소형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말이산의 북쪽 일대에는 아라가야의 전신인 삼한시대 안야국(安邪國)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말이산고분군은 기원 전후부터 아라가야 멸망 때까지 약 550년간의 고분들이 누대로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주로 통모양굽다리접시와 불꽃무늬굽다리접시, 손잡이잔, 문양뚜껑, 각종 향아리와 그릇받침 등으로 4~5세기대 아



사진 3. 불꽃무늬굽다리접시



사진 4. 미늘쇠

라가야 양식의 특유의 토기들이다. 철기는 ‘철의 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아라가야답게 수준 높은 철기들이 출토되는데, 동근고리큰칼을 비롯한 쇠창, 화살촉 등의 무기와 투구와 판갑옷, 비늘갑옷 등의 무구, 말투구와 말갑옷을 비롯한 재갈, 안장 등의 말갖춤, 새모양장식을 붙여 만든 미늘쇠 등이다. 특히 대형봉분에만 부장되는 덩이쇠는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로 성장한 아라가야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종 말띠드리개나 말띠꾸미개 등에는 금과 은을 활용한 장식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배층의 화려한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또 아라가야의 대외교류를 가늠할 수 있고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불꽃무늬토기가 있어 ‘철의 왕국’으로 불리었던 아라가야의 우수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라가야가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시켰던 찬란한 문화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대 한반도 남부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가의 교류, 갈등, 정복 등의 관계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 합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합천은 《삼국사기》 권 34 잡지(雜誌) 강양군조(江陽郡條)에 의하면 통일이전 신라 시기에는 대량주군(大良〔耶〕州郡)으로 불리었다. 후기 가야연맹체제 내에서 가장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대야주라 불렀기 때문이다. 신라가 대가야를 합병한 후에도 지명을 그대로



사진 5. 옥전고분군

존속시키면서 이곳에 도독부를 두어 백제를 견제했다. 지금은 이름만 전해오는 다라국이 일찍이 선학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합천일대로 비정되어 오는데, 중심 고분군인 옥전 고분군 인근에(직선거리 0.8km)에 다라리라는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합천지역의 곳곳에는 작은 세력집단의 존재를 알려주는 고분군이 분포하지만 이들이 독립적인 세력집단은 아닌 듯하다. 합천지역의 고분군은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분포한다. 이것은 합천의 가야국이 5개의 촌락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 집단 중에서 중심이 되는 고분군의 무리는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자료로 보는 한 쌍책면 일대의 고분군들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옥전 고분군이 합천 일대의 지배자 집단의 묘역일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분군이 밀집되고 규모가 큰 것들이 분포하는 지역은 삼가면 일대에 해당되고 그밖에 현재의 합천읍 일대의 지역, 봉산면·대병면·가회면 일대의 지역, 야로면·묘산면 일대의 지역에도 각각 고분군이 모여 있다. 이들 각 지역구의 고분군들 중에서 발굴조사 되어 성격이 자세히 밝혀진 고분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옥전 고분군과 봉산면·대병면 일대의 봉계리 고분군, 저포리 고분군,



창리 고분군, 삼가면 일대의 삼가 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소규모 고분군들은 합천분지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지배자집단의 고분군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당시 합천지역에는 몇 개의 촌락을 거느린 소국, 즉 가야제국 중의 한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가야국은 주변의 다른 가야국들과 대립하거나 신라 혹은 백제와 교섭하면서 그 세력을 성장시키다가 결국 신라의 정복으로 그 지방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합천은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양 세력의 각축장이 된다.

중심이 되는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은 황강변의 해발 50~80m에 달하는 야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몇 개의 능선에 나누어져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봉토가 남아 있지 않아서 외형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특이하게 한 지역에는 지름 20~30m의 고총고분이 27기 군집하고 있으며 고분의 총 수는 약 1,000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유적은 1985년 여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황강변 정밀지표조사과정에서 다량의 토기와 갑주, 금동제품편이 채집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해 겨울 1차 발굴조사를 필두로 1987년 겨울, 1989년 봄에 걸쳐 3차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91년 여름부터 1992년 봄에 걸쳐 4, 5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고분은 모두 146기인데, 특히 수혈식석곽묘 중에는 같은 대형이면서도 거대한 봉분이 남아 있는 것과 봉분이 깎여나가 전혀 흔적이 없는 것이 있으며, 또 소형은 측벽의 축조가 아주 정연함에 비하여 대형은 극히 무질서해 보이는 특이함이 엿보인다.



사진 6. 고리자루큰칼

### 3.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은 지정 면적 81만 3227m<sup>2</sup>. 200여 기(基)로서 대형분(직경 20m 이상)·중형분(직경 10m 내외)·소형분(봉토 미확인)으로 구분되며, 대형분 72호분까지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1906년 일본 고고학자 세키노[關野貞]가 처음으로



사진 7. 지산동고분군

발굴조사하고, 그 뒤 1915년 1918년 1939년 일본 학자들이 계속 조사하였으며, 1977년 경북대학·계명대학이 대형분 44·45호분을, 1978년 계명대학이 중형분 4기(32~35호분)를 조사하였다. 최근에는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73~75호를 발굴하였다.

고분군은 머리 쪽이 넓고 발치 쪽이 좁은 두광족협(頭廣足狹)의 돌널무덤과 매장부의 네 벽을 할석으로 쌓고, 판석(板石)을 뚜껑으로 덮은 구덩식(수혈식) 돌덧널무덤, 그리고 돌덧널무덤보다 내부공간이 넓은 구덩식 돌방무덤으로 구분된다. 그 중 대형분인 44·45호분을 보면 하나의 봉토(封土) 안에 주·부실이 나란히 놓인 구덩식 돌방무덤에 주인공이 안치되고, 그 주위로 주인공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순장된 돌덧널무덤이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순장자(殉葬者)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형분의 피장자는 5세기 말 이전 대가야국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 있는 굽다리접시를 비롯하여 목항아리, 구멍 있는 아가리 넓은 항아리 등의 토기류와 창·화살촉·칼·도끼 등의 철제 무기류, 복발형(伏鉢形)투구, 말안장·발걸이, 타원형 재갈멈추개 등의 마구류, 대롱옥·굽은옥·마노제다면옥

(瑪瑙製多面玉)·요 패 지석(要佩砥石)·귀고리 등의 장신구류, 금동제관형장식(金銅製冠形裝飾)·세잎고리자루긴칼(三葉環頭大刀)·금동관(金銅冠)등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 1) 삼한시대 고령, 대가야의 여명

가야에는 두 가지 건국신화가 전해온다.

하나는 “가야산신과 하늘신 사이에 태어난 두 형제 가운데 형은 대가야 시조인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이 되고, 동생은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이 되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 알이 깨어 6명의 동자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깨어 나온 동자가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동자가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 는 것이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300년 정도까지 한반도 남부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구성된 마한·진한·변한이 있었다.

고령지역에 처음으로 나라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삼한시대로 당시의 이름은 미오야마국(彌烏邪馬國) 또는 반로국(半路國)이라 하였다. 이 작은 나라가 점차 성장하여 가라국(加羅國)이라 불리다가 40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하여 가야 사회를 대표하게 되면서부터 대가야국(大加耶國)이 되었다. 그 후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대가야군(大加耶郡)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시대의 경덕왕 때인 757년부터 지금의 이름인 고령군(高靈郡)이 되었다.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가라국 사람의 나무덧널무덤 가운데 1호는 서기 370년쯤에 만들어졌다. 무덤구덩이의 규모는 길이 482cm, 너비 305cm, 깊이 95cm로서 당시 이 지역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는 토기와 철기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지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것들 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 2)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서기 300년대부터 가라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대가야국으로 불렸다. 대가야는 주변의 철광산을 개발하여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대의 힘을 키웠다. 그리고 백제나 왜와 교류하며 발달된 문물을 주고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기 400년대에 접어들면서 크게 발전하여, 479년에 하지왕(荷知王)은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왕들처럼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이름을 받아 왔다.

전성기의 대가야는 합천·거창·함양·남원 등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발전이 백제나 신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대가야 토기에 ‘대왕(大王)’이라는 글씨와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란 글씨가 새겨진 것이 있는데, 수도 고령에 있는 대왕이 하부라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야가 멸망할 당시까지 대가야 권역 안의 가야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나라의 이름들이 쓰이고 있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정치체제를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는 백제·신라는 물론 중국·왜와도 문물을 교류하면서 발전하였다. 고아리벽화고분의 무덤구조와 연꽃무늬, 지산리 44호분에서 출토된 청동그릇과 등잔 및 입큰구멍단지 등은 백제와의 교류를 보여준다. 또 야광조개국자는 왜와, 지산리45호분의 고리칼은 신라와의 교류를 나타낸다. 한편 일본 열도 각지에는 대가야계통의 토기와 철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대가야문화가 활발히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함안박물관 홈페이지 [museum.haman.go.kr](http://museum.haman.go.kr)

합천박물관 홈페이지 [mus.hc.go.kr](http://mus.hc.go.kr)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www.daegaya.net](http://www.daegaya.net)

[네이버 지식백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 [高靈池山洞古墳群] (두산백과)

경상남도, 2013, 『가야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학술연구』

경상남도·경남발전연구원, 2013, 『김해·함안의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적 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웅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